

교회 재정

공개하고, 공유하기

“교회재정공개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실천적 한계에 대하여”

- | 성석환 교수 (장신대, 도시공동체연구소)
- | 최호윤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 | 한 용 목사 (높은뜻하늘교회)

2024. 11. 12.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소개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이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핵심인 교회재정을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돋는 운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연구 결과들을 교육하고 보급하며, 각 교회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기독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4개의 운동 전략을 가지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 재정관 정립 및 한국교회 재정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를 다방면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교회재정운동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회계 계정 표준화 및 처리 예규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배포 및 홍보** |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재정 사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재정 정관 및 조례를 보급하고 있으며, 재정관리 매뉴얼과 책자를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P-Tax를 통한 목회자들의 소득신고와 세무회계를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회현장운동** | 재정결산서 공개 및 외부감사 수감 운동과 함께 재정사고 예방 및 재정분쟁에 대한 중재 등 교회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정문제들에 대하여 예방과 갈등 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 컨설팅** | 재정담당자 및 감사인 교육과 현장세미나 및 교회재정관련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바르고 투명한 교회 재정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관리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재정운영의 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회계법인 더함)

홈페이지 www.cfan.or.kr www.facebook.com/cfan05

연락처 02-6951-1391 fax 0505-231-2481

후원계좌

* 기부금 영수증 필요시 | 국민 004401-04-191563 (재)한빛누리(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일반 | 국민 431801-01-151889 최호윤(재정건강)

순서

■ 발제1

성석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시공동체연구소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교회의 선교적 재정운영

■ 발제2

최호윤 회계사 | 회계법인 더함,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서는 것이 무서운 청지기의 재정공개

■ 발제3

한용 목사 | 높은뜻하늘교회

재정공개의 실천과 한계를 말하다

■ 질의응답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교회의 선교적 재정운영

- 성석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시공동체연구소)

예수께서는 돈과 재물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도 하셨고, 먹고 마실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으며, 천국의 비유로 사용된 열매 없는 가시 떨기나무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다. 바울은 심지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전 6:10)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적어도 신약성경은 부와 재물을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구약의 여호와는 재물과 부를 복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이들은 재물의 복을 겸하여 받는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재물과 부는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재물을 나누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많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년 법이나 안식년 법이 대표적이다.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업과 일상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깔뱅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되 낭비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금욕하며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19세기의 부흥 운동을 거쳐 확산과 발전의 논리를 내재화한 기독교는 풍요의 시대를 경험하며 소비주의에 물든 자본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성장주의, 성공주의와 타협하기도 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악하다고 비판

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지급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도 소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다.

현대인은 모든 순간에 유, 무형의 돈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 돈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경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생활은 필연적으로 신앙 윤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신앙공동체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신의 세계와 풍요의 영성

트럼프의 당선으로 30여 년 동안 이어온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종언을 고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자본을 우상으로 사목 모든 재화를 상품화하는 물신주의는 수그려들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기독교의 영성과 경건은 능력주의와 효율성으로 대체되면서 ‘돈’은 교회를 집어삼키려 온갖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풍요의 이방신을 섬기다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자가 한국교회 위에 드리워지고 있다. 승자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돈의 위력을 부정하지 못하며, 풍요와 성공의 신화가 부패한 썩은 내를 뿐어내고 있다.

이른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대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나마 20세기에 경험했던 중산층의 건강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사회 구성원, 특히 경제생활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면 이 지구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오늘날 일부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면, 현대인은 이전에 없던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 과시를 위한 낭비와 소비를 위한 부채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신앙공동체는 개인이든 교회이든 모든 재화의 주인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과 부의 근원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저 청지기라는 윤리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의 회복이다.

청지기 정신과 교회

청지기 정신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관리하고 또 섭기는 이라는 고백을 담은 기독교윤리적 원리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자주 가르치셨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섭길 수 없느니라.”(눅 16:13)고 하신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고 하셨다.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을 섭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곧 가난한 자를 돋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부가 집중되고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말한다. 성경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과 함께하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이 있다.”¹⁾고 하셨다.

부의 성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도 성경적으로 정돈되어야 한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짹트게 된 이유를 개신교의 금욕주의 윤리와 청교도 정신에서 찾았다. 이는 그동안 터부시되던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소명 의식을 갖고 돈을 벌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정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베버가 찬양한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은 욕망과 탐욕을 무한정으로 채우기 위한 온갖 방법들로 대체 되었고, 개인의 소유권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하면서 본래 절제와 금욕의 개신교 정신이 배제되고 말았다. 심지어 교회조차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에 휩쓸리게 되면서 기업처럼 규모의 경제를 신봉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세속주의적 가치들과 타협하고 만 것이다.

1)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즉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당시 상황을 고려컨대 역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에 하나님만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

청지기 정신의 강조는 주로 그리스도인 개인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정신은 제도로서의 공적 기관인 교회 역시 따라야 할 성경적 가치이다. 오히려 교회의 재정 운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더욱 그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로서 재물의 축적과 유통, 보존과 사용에 있어서 주인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책임을 맡은 이들 역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할 때 그려해야 한다. 만약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청지기 정신으로서 재정의 운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서 마치 천국에 사는 이들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나 세속 도성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세속 사회의 규칙과 원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루터와는 달리 적극적인 투자나 이윤 창출 행위를 권장했으며 세속적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세속적 삶을 긍정해야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재물을 향한 탐욕과 무한한 소유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것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세의 교회가 권력과 소유의 욕망에 무너져버리지 않았던가? 거대한 성당을 짓느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군사를 일으킬 비용을 마련하느라 교회는 타락하였고 맘몬의 노예가 되었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등장한 종교개혁 세력은 세속적 삶을 오히려 긍정함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고 다만 교회당이 아니라 세속 사회 전체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청지기적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성장과 성공의 신화는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렸다. 한국교회의 ‘건전 재정’ 혹은 ‘투쟁 재정’ 운동은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이 통제와 견제 없이 소용되는 교회의 재정 운영에 기인한다는 교회개혁 진영의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목회자가 교회 재정 운영의 전권을 쥐고 전횡한다는 비판은 실제로 교회개혁의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일부 대형교회의 힘은 표면상 ‘종교적 권위

(영적 권위)’처럼 보였지만 사실 ‘돈’의 힘이었고 ‘돈’으로 구한 권력의 힘이었다. 본질상 ‘현금’의 기부금 형태인 교회의 재정은 국가의 조세제도로부터도 규제를 벗어나 있었고, 전횡을 휘두르는 목회자의 결정은 재정 운영의 원칙을 주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막강한 권한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내 건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여러 교회가 재직회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혹은 감사 기능으로 교회의 재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했었다. 목회자들은 공적 자금을 사용할 때 용처의 증빙을 요청받게 되었고, 사전 확인이 없는 교회의 재정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이는 다만 목회자들에게만 요청된 것은 아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의 회계 결산과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수정해야 할 책임도 따랐다. ‘투명 재정’ 운동은 거룩한 신앙공동체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한국교회에 제공하였고,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증언: 선교적 재정 운영으로

그러면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은 그 자체로 ‘교회다움’의 표상이 되는가? 민주사회의 한 사회적 제도로서 교회는 그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이제 목회자도 납세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세속 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 기업의 민주화나 정직한 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과 전매를 방지함으로써 고정한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진보적 주장을 하는 이들이 시장의 민주화, 재벌의 민주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법과 제도의 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과 소유의 욕망은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방법을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업의 범죄와 재벌 오너의 타락은 계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세속적 범주 안의 제도적 특성이 있어서, ‘투명 재정’이 지향하는 완벽한 정직한 재정 운영은 일종의 환상이다. 더구나 ‘운동’이 교

회의 제도적 특성을 강화하면 오히려 교회의 신앙공동체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장 긴급히 효율성과 관계없이 투입해야 하는 선교적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 사전 동의나 합의가 없어서 목회철학적 판단에 의한 즉각적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앙공동체의 역동성을 현저히 낮아진다.

결정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의 책임자나 당사자가 목회자 혹은 교역자 그룹으로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교회의 일부 인사나 유관 위원회가 목회 활동의 경쟁자처럼 행동하는 예도 극히 일부지만 없지 않다. 정해진 규칙과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재정 운영은 기업의 경우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신앙공동체의 경우 규칙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감시 장치로만 작동하면 목회와 신앙적 역동성을 낮아지게 된다.

이는 ‘투명 재정’ 운동 자체의 문제라거나 이 실천 자체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자기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 재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하거니와 개혁교회는 세속적 제도를 부정하지 않기에 그 요청을 준수하며 동시에 세속적 제도에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세속적 제도가 교회의 신앙적 역동성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간신하여 제도적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 방향은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의 원리를 다시 발견하며, 오늘의 시대적 정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투명 재정’ 운동이 한국 사회의 충만한 민주적 열망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합의와 장치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신앙공동체의 당회는 이사회가 될 수 없다. 교회가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사회가 실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을 교회의 견제 장치가 그대로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일 수는 없다. 목회자나 당회나 교회의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표현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맡아 있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대표이사나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사회의 조직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교회 조직과 제도의 운용은, 효율과 민주적 원칙에 우선하여 신학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론이며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세워진 고백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재정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양 다루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형편을 볼 때,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유효하다. 동시에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역동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교회 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돋는 재정 운영의 합의와 질서도 새롭게 연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적 구비를 논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의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한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세우고 활성화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은 기꺼이 투입되어야 하고 풍성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약자를 세우고 소외된 이를 가족과 이웃으로 초청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내부의 오락과 풍요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재정 운영은 아무리 투명하게 관리되어도 교회다운 사용은 아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파송 받은 지역과 사회를 위해 기꺼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가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일에 더욱 많은 재정이 할애되도록 해야 한다.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대부분의 재정이 교회 내부의 조직 관리나 인건비로만 충당되는 실정이라면 과연 그것이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과거 민주적 요청에 호응하였던 ‘투명 재정’ 운동은 이제 ‘선교적 재정 운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선교적 재정 운영’은 교회가 파송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의 선’을 확장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써, 견제와 감시의 제도적 특성을 통해 확인하는 ‘투명성’을 선교적 실천을 통해 교회 재정 운영의 ‘선교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엄격성을 넘어 오히려 유연하고 창의적인 재정 운영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선교적 재정 운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회 재정 운영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과 사회에 증언하고 실천하는 선교적 투명성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서는 것이 무서운 청지기의 재정공개

- 최호윤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 들어가는 글

상법 제466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불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
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995/12/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²⁾ 제13조 제2항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
거나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998/1/7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
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 · 세출결산서를 시 · 군 ·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2) 수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으로 전면개정되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14/3/5 국민일보

최근 문제가 되는 재정장부 열람이나 목회자·특정교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³⁾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경영을 위임한 이후 위탁자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임원들이 경영 결과로서 작성한 결산서를 보며 경영을 잘 하였는지 평가하고 계속 경영을 위탁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임원들이 주주들에게 결산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주주로서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법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권을 법 상법 제466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불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위탁자로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출자자가 아닌, 다시 말해 회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들도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분야에서도 1995년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도 법인의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기부금을 받는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결산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반 사회는 개인사업체가 아니면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제공받은, 조달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요구하고 있고 있다.

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102604>

이에 반해 교회는 사회가 재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과 규정으로 제정한 시점보다 훨씬 시간이 더 지난 2014년 모교회가 재정분쟁으로 진행된 재판이 종료한 후 교회를 지키고자 공동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고, 정관규정 모범을 보였다는 제목으로 기사⁴⁾화 되었다.

사회는 재정을 더 투명하고, 더 공개하도록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데 교계 내부에서 재정공개를 막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바람직한 현상인가?

2. 교회재정 관리의 위임과 수탁관계⁵⁾

교회의 재정관리는 누가 누구에게 관리를 위임하는가?

영리기업의 경우 출자자가 관리를 위탁하고, 비영리법인은 출연자들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교회는 현금/연보를 출연한 교인들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책임을 받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다. 즉, 하나님이 교회에 재정관리를 맡기셨으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재정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재정관리자들에게 다시 위탁하는 구조이다. 교회는 재정관리의 수탁자이며, 동시에 위탁자라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므로 교회 재정관리 설명하려면 ‘교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예수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언급하고 있으며(고전1:2) 머리된 그리스도에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들의 모습을 교회로 묘사하고 있다(엡4:15~16).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개체로서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단순히 모이는 단체 차원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⁶⁾을 의미한다.

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102604>

5) 본 챕터는 2014년 6월 18일 죄담회(재정공개 실현과 과제)에서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6) 한스 킹,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2012, pp64~65

위탁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다. 교회재정관리의 구조는 개체로서의 교인들이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재정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보고/재정공개는 실무적으로는 이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일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위임받은 청지기(교회)의 방향성

누군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청지기는 위임자 입장에서 대신하여 관리해야하며, 성격은 주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마25:21,23 고전 4:2, 마24:45).

주인이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서 볼 수 있는 덕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나는 충성되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기중심 관점에서, 자기만족 수준에서 머물기 쉬우며, 이를 넘어서려면 주인이 일을 시킨 의도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택하신 의도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가 재정 관리에 청지기로서 가져야할 관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고(사49:6),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소명은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나라 백성들간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임으로 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구원⁷⁾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공동체적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집합체’라는 교회의 속성과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교회 재정 공개가 가지는 의미를 찾

7)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IVP, 2002, P69

아 보겠다.

4. 투명한 공개

재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재정이 조달된 상황과 사용한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공개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1) 개별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지면서 내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2) 어려운 재정상황에 부담감을 느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3) 외부 간섭이 증가하고, 4)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점을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죄와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누구든 실수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발생한 실수와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와 오류를 바로잡아 개선해 갈 수 있느냐는 이슈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것인지와 동일한 관점이다. 투명하면 드러난 과정과 결과들을 보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공개는 바른 재정관리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의의가 있다.

(1) 증폭되는 내부갈등

재정을 공개하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인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함으로 교회가 해야하는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양한 신앙성장 환경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다.

우리는 당연히 사역이 효율적으로 잘 완수되기를 원하지만 효율성과 신속성을 하나님도 우선순위로 원하시는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사역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교회를 통한 사역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정을 원하시는 것인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꿈은 독립 또는 자립이다. 독

립과 자립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존재하고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방해 요소가 안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각자로서는 성실히 결과를 만들지만 독립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타인과의 관계성이 상실된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능력을 각기 다르게 주신다. 그럼에도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자산과 개인한 정신상태로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⁸⁾. 마계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임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나누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했다(고후 8장).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원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능력까지 포함한다, 설사 계획하는 사역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다.

교회의 의미가 공동체적 구성원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일부 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관리하는 것이며, 소수가 교회의 이름으로 다수 교인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탈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교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소수 집행진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면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재정관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목적물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 이전에 수행되는 교회의 공동체적 진행과정에 의미가 있다. 죄인된 우리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 되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기다리라고 하신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강한 사람이 좀 더 약한 지체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공동체로서 가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2) 교인들의 부담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경우 어려운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까 하는 염려로 재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관점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8) 랜디 프래지,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좋은씨앗, 2005.6, p208

-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지체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배려 이전에 믿음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제자로서 입교하는 구성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의사결정과정에 교회 (공동의회)구성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참여하면서 같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닌가?
-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제자로서 교회의 청지기적 주체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 관객, 이적과 기사를 찾아 다니던 무리로 전락 시키는 것이 아닌가?
- 재물을 가지면 심적 여유가 있고 재물이 없으면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과 맘몬중 누구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인가?

현실적인 결과의 어려움이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원칙을 포기할 명분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또한 구성원들이 같이 풀어갈 사안으로 인식될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된다.

(3) 외부간섭

재정이 공개되면서 몰랐으면 넘어갈 이슈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엄중하게 질문해야 한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격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교회가 잘못한 것인지?

바울은 연보를 관리하는 자들이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한다(고후8:20, 21). 재정을 공개하면서 공격거리, 비방거리가 되어 공격하는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공격거리, 비방거리의 원인을 고치고 변화 시켜야 한다. 맡은 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돌들이 소리치면서 교회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너희 빛이 사람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재정관리에 비방거리가 없게 하고, 교회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다.

(4) 개인 프라이버시

교회 재정 사용에서 구제비 지출, 장학금 지급 등 특정한 경우 개인의 자존감(Privacy)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교비 등의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i) 비용지출에 대한 원칙(또는 규정)을 사전에 정하고, ii)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iii) 특정인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와 같은 공동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하고 iv) 공동 의사결정 기구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나가는 글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상종하고 싶지 않은 혼혈 민족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이르라는 것은 교회의 행실이 교회안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가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분리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사회제도권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린다. 일반사회는 이미 투명한 재정 공개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는 교회 재정은 손가락질의 대상이기 이전에 깜깜이 재정으로 오리무중이 된다.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우선순위가 보인다는 관점은 재정이 사용되는 내역에 따라 교회의 우선순위를, 교회의 생각을 보고하는 것이기에 재정보고는 교회내에서의 수탁책임보고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탁책임보고 활동이 된다.

교회가 교회안에서만의 공유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할까 조심하지만, 세상이 비방하는 것 조차 재정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돌아보아야 한다.

재정공개의 실천과 한계를 말하다

- 한용 목사 (높은뜻하늘교회)

용인동백에 위치한 높은뜻 하늘교회를 섬기는 한용목사입니다.

교회 재정의 공개와 공유에 대한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교회가 가진 역사와 성격이 다르기에 저희 교회의 이야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재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또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서

몇 해 전 강릉의 한 닭강정 업체가 위생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비위생적인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것이 밝혀져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랜시간 줄을 서서 먹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이들도 많았습니다. 논란 이후에 매출이 40%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요식업체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직원들은 반도체회사처럼 위생복을 입었고,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을 개선했으며, 무엇보다 조리시설의 공간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개선의 노력으로 3개월여 만에 이전의 매출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업체가 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반도체공장과 같이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00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교회재정의 공개 및 공유'라는 세미나의 주제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요식업체가 주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방으로 만들거나 또는 조리과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시설로 문제가 되었던 업체는 그

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우리는 변했어요'라고 말하더라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다시 신뢰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이 업체의 변화는 사회적인 신뢰를 잃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재정적인 건강함과 깨끗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재정의 공개와 공유'의 주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와 공유의 유익

교회가 재정을 공개해야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교회도 많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공개'가 교회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점에 있어서는 재정공개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너진 신뢰의 회복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감출 것이 있거나, 부정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으로 인한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불신 중 첫 번째가 투명하지 못한 재정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재정을 바르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한 오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다투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의회를 통한 예산의 수립과 정해진 절차에 따른 지출 그리고 공정한 감사가 성도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목회자나 당회 또는 소수의 교인들에 의한 재정의 사적인 유용이 생길 여지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다른 유익은 교회재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점입니다. 교인들은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있는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고정된 지출이 필요한지 등 교회의 재정의 규모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위해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불안해 하고, 교회를 떠날 것을 우려해서 부채를 감추려 합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교회는 교인들이 현금을 적게 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교인들에 대한 불신일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해야 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어떻게 갚을지도 교인들과 함께 정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인들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재정지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단순하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사용했다라는 공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공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수입에 대한 예측은 어느정도인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출하고 있는 재정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비율을 이루고 있는지, 각 부서별의 비중은 어떤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성도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수입과 지출의 추이, 비중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때 교회의 재정에 대한 참여도와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중점 사역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집중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도를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3년간은 차세대 교육부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라는 표어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차세대 교육에 예산의 비중을 어떻게 높여 갈지, 그리고 차세대 특별예산 편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방향성과 그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회 재정의 공공성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 수입을

비롯해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코 담임목사나 당회 또는 일부 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교회 재정의 모든 출납과 예산의 수립, 감사 등의 일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맡을 조직을 구성합니다. 예산의 수입과 결산, 감사는 당회에서, 그리고 집행은 제직회에서 하는 것이 각 교단들이 가진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회와 제직회는 교인들로부터 재정의 권한을 위임 받은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와 제직회는 반드시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집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재정의 공개 유무는 선택의 문제나,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재정은 공공의 소유이므로, 이 재정이 쓰여지는 것은 교인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담임목회자나 재정부장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집행되서는 안됩니다. 이때,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건강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 및 직원의 사례비에 대한 규정이나, 봉사자들의 인건비, 선교사 후원이나 단체후원 그리고, 후생비(식비나 간식비 등)나 접대비, 목회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한 번에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번 만든 규정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때로는 교회를 삽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규정을 만들며 가장 많이 아쉽고 어려웠던 부분이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때는 감정이 상하고, 화해가 안될 때인 것처럼, 규정을 찾게 되면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 오해는 실제 규정으로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규정보다 교인들의 감사와 은혜가 더 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교회가 만드는 규정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높은뜻 하늘교회의 이야기

- . 매주 주보를 통해 수입의 내역과 출석인원 공개
- . 제직회를 통해 분기별 결산을 공개
- . 교인들이 참여하는 예산위원회를 정관에 규정
- . 교인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및 비정기적 외부감사 시행
- . 목회자 사례비 위원회를 통한 사례비 결정 및 사례비 공개
- .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4대연금지급(직원)
- . 퇴직연금(DC형) 가입
- . 홈페이지에 예산안, 각종 규정, 분기결산, 예산안, 감사보고서 등 공개

짧은 나눔을 마무리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의 이야기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유익을 얻은 하나의 사례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0반도체'라고 불리게된 닭강정 업체와 같이 다시 재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